



인생 한방 내 손에 달렸다

영화 '스플릿' 주연 유지태 "볼링도박 소재가 독특해 선택" 4개월간 하루 4~5시간씩 연습

최근 TV 드라마 '굿 와이프'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배우 유지태가 영화 '스플릿'에서 프로 볼링 선수로 변신했다.

'스플릿'은 도박볼링 세계에 뛰어난 밀박 인생들의 짜릿하고 유쾌한 승부를 그린 오락영화다.

신인 최국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그동안 한국영화에서 도박을 소재로 한 여러 영화가 등장했지만 '스플릿'은 볼링도박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내세워 화제를 모았다.

유지태는 과거 볼링계의 전설이었지만 이제는 한물간 볼링선수 철종역을 맡아 스타일부터 캐릭터까지 이전의 반듯한 이미지와는 다른 파격 변신을 시도했다.

유지태는 18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스플릿' 제작보고회에서 "천재 볼링선수였다가 불운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자폐아면서 천재 소년을 만나 인생의 재기를 꿈꾸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유지태는 "볼링도박이라는 소재 자체가 독특해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작가주의 영화나 무거운 영화에서 심각한 캐릭터를 주로 맡았는데, 이제는 밝고 재기발랄하고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유지태는 볼링선수를 연기하기 위해 4개월간 하



루 4~5시간씩 볼링 연습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 영화를 만나기 전에는 볼링을 딱 한 번 쳐봤다"면서 "그러나 4개월간 연습을 거쳐 최고 점수를 공식적으로 226점까지 올렸다"고 소개했다. 볼링은 300점 만점이 퍼펙트게임이다.

유지태는 "이 영화의 블라인드 시사 때 관객들의 평점이 높았다"면서 "홍행면에서도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퍼펙트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최 감독은 "제목 '스플릿'은 볼링 용어로 남은 두 개 이상의 핀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을 말한다"며 "스플릿처럼 삶도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음을 뜻한다"고 영화 제목을 설명했다.

최 감독은 "볼링 레인 위에 촬영장비를 올릴 수 없어서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각도의 촬영 기법이 동원됐다"면서 "볼링핀이 쓰러지는 모습과 호쾌한 소리가 볼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이정현이 허당 매력을 지닌 도박 브로커로, '뮤지컬계 황태자'로 불리는 정성화와 이다윗, 권혜효 등 총무로의 개성과 연기자들도 출연한다.

이정현은 "제 인생 영화인 '올드보이'에 출연한 유지태씨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출 수 있어 기뻐"면서 "그동안 한이 많은 역할이나 무거운 역할의 시나리오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밝은 캐릭터를 맡았다"며 웃었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45 2016 리우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강연 100% 라이브 55 감성애니 하루	00 공황 가는 길 (재)	00 옥중화 (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재)	00 SBS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00 생생정보스페셜		
2	00 미래기획 2030 50 이국정 PD의 자연 담은 한기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문스터(재)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다큐 공감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야사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예술은 또봇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원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5 공감다큐, 사람 55 별난가족	30 글로벌24 55 구석구석 숨은 돈 찾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특별기획 슈퍼아시아 6부작 55 숨터	00 공황 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	00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인간탐구 위대한 질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효린 솔로 컴백

내달 8일 새 앨범

그룹 씨스타의 효린이 3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다.

소속사 스타웍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효린의 컴백 일정과 피쳐링 라인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효린은 오는 26일 래퍼 도끼, 다음 달 1일 박재범과 함께한 선공개 곡을 발표하고, 이어 8일 새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이번 컴백을 통해 효린은 3개의 특별 콘셉트 제작한 3편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인다.

효린은 앞서 세계적 힙합 일렉트로닉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의 새 음반에 보컬로 참



여했을 뿐 아니라, 일렉트로닉 뮤직의 가장 인 작곡가 조르지오 모로더와의 컬래버레이션(협업) 작업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이오아이 마지막 앨범 ... 5년뒤 재결합 약속

앨범 '프로듀스 101'을 통해 탄생한 11인 조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마지막 완전체 앨범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한부 활동을 하는 이들은 당초 계획한 총 4장의 앨범 중 이제 유닛(소그룹) 앨범 한 장만 남겨둔 상태이다.

미니앨범 '미스 미?'(miss me?)의 타이틀곡 '너무너무너무'는 이날 공개되자마자 8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앨범 쇼케이스에서 멤버들은 5개월 만에 완전체로 뭉친데 대해 "다른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좋다. 마지막 활동을 신나게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너무너무너무'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잠깐만'은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에 출연 중인 비연이외포의 진영이 작사·작곡해 관심을 모았다. 박진영이 이끄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전소미는 "회사 프로듀서님이라 굉장히 떨리고 설레었다"며 웃었다.

이번 앨범은 아이오아이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후 나올 유닛 앨범으로는 방송 활동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정재연은 "멤버들과 '남은 시간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열심히 하자"고 약속했다"고, 유연정은 "5년 뒤 재결합하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이오아이의 일정이 끝나면 정재연은 걸그룹 다이아로 복귀하고 김세정과 강미나는 구구단, 유연정은 우주소녀로 활동을 이어간다.

나머지 멤버들은 "이후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시 연습생으로 들어가 실력을 높인 뒤 데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기사 마이크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빙하의 대어정 때로제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배추 당면국과 우렁 채짜꾸기>	15:35 오솔상자(2)	<울리안 알프스의 축복 - 솔로베리아>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레이디버그(재)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두다다쿵	<행복의 높이 해발 700M>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07:30 뽀뽀뽀 뽀로로	12:40 지식채널 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머더미의 강, 메콩>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EBS 초대석	17:45 뽀뽀뽀 뽀로로(재)	22:45 국한적임
08:00 덩동영 유치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참술 가공 공장>
08:45 최고다 호기심 천국	13:50 그림을 그려요(2)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35 장수의 비밀
09:00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3:55 코코몽(3재)	19:30 EBS 뉴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시계마을 타기톡	14:25 책과 땅	19:50 명의(재)	<피해자가 바깥 쪽의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케이코를 집은 이유는?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5:05 두기탐험대	<관우를 가리며>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음 9월 19일 甲戌)

子	48년생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60년생 더불어 행하고자 함이 유익하다. 72년생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84년생 원칙적인 기준 하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4, 09	午	42년생 한 번 모순에 빠지면 연쇄적인 과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국량이다. 54년생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 66년생 앞선 것도 방치한다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78년생 오히려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재반사에 삼가라. 행운의 숫자 : 13, 31
丑	49년생 한날 부질없는 욕심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61년생 주변 인물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일이 있다. 73년생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대국을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85년생 이익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도모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6, 35	未	43년생 지금의 마당에서는 참신한 변화의 추구가 활로를 개척하는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55년생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67년생 상대의 논리에 빠져들지 우러가 있다. 79년생 대법한 행동을 보일 때다. 행운의 숫자 : 08, 71
寅	50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깃드는 양태이다. 62년생 마음만 먹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실정을 착수해야 가치가 있다. 74년생 확실히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다. 86년생 계획 수립으로 무척 부산할 때다. 행운의 숫자 : 88, 90	申	44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56년생 아깝더라도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끈다. 68년생 간절적인 요인이 보이면 그것에 중점을 맞춰라. 80년생 쓸모가 없으니 체념은 빠른수록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99, 58
卯	51년생 전방위적이고 완벽한 방어책이 절실하다. 63년생 실행의 규모와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75년생 태외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87년생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포기하라. 행운의 숫자 : 70, 60	酉	45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리성을 높인다. 57년생 방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회근이 될 수 있느니라. 69년생 확실한 목적의식이 성공의 길로 이끈다. 81년생 현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42, 91
辰	40년생 기초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느니라. 52년생 속단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적응만 잘한다면 길사가 펼쳐지리라. 76년생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88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32	戌	46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궁극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루어라. 58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판세이다. 70년생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82년생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79, 93
巳	41년생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될 것이다. 53년생 철저한 실행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65년생 성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77년생 예상치 못한 마당에서 당혹스럽겠다. 89년생 전로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48, 41	亥	47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59년생 순발력을 발휘한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71년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83년생 가부를 분명히 표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4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